

ALINE SMITHSON
사진가의 어머니

액자와 의자가 놓인 어느 방, 한 노인이 액자 속 그림과 비슷한 치장을 하고 앉아 있다. 언뜻 회화 같기도, 또 사진 같기도 한 이 독특한 작품 속 노인은 바로 미국 사진가 알린 스미슨(Aline Smithson)의 실제 어머니다.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5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11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3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14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10



-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12
-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7
-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15
-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2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16

“휘슬러(Whistler)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구성, 액자와 소품 같은 섬세한 디테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 시켰다. 모델은 당시 85세였던 나의 어머니였고 하나하나 세트를 만들어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편차는 몸에도 불구하고 20여 개의 작품마다 일일이 포즈를 연출해 주셨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머니는 이 완성된 시리즈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 Aline Smithson

일반 초상사진과는 느낌이 다르다. <Arrangement in Green and Black, Portraits of the Photographer's Mother: 사진가 어머니의 초상화>를 작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 시리즈는 우연찮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이웃에서 열린 벼룩시장에서 화가 휘슬러(Whistler)의 '회색과 검은 색의 구성: 화가 어머니의 초상화'라는 작은 인쇄된 그림을 보았고, 그 때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후 너무나도 우연히 표범 무늬 코트와 모자, 휘슬러(Whistler)의 그림에서 본 것과 똑같이 생긴 의자를 발견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사진가의 어머니>라는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다. 휘슬러(Whistler)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구성, 액자와 소품 같은 섬세한 디테일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구체화 시켰다. 모델은 당시 85세였던 나의 어머니였고 하나하나 세트를 만들어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편차는 몸에도 불구하고 20여 개의 작품마다 일일이 포즈를 연출해 주셨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머니는 이 완성된 시리즈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촬영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이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 작품들은 이후에 출판되고 전시되었는데,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포즈를 즐겁게 감상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안다면 분명 깜짝 놀라실 것이다.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품 표현 방식이 독특하다.

당시 암실을 주로 사용하였고, 흑백 사진만 고집해서 찍었다. 하지만 화가였기 때문에 실버젤라틴 인화지에 사진을 인화하고 그런 다음 그 인화한 사진에 직접 색을 칠해 넣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 시리즈는 전통적인 사진기법이면서도 사진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방

법으로 더욱 풍성한 컬러감을 갖게 되었다. 물론 화가 휘슬러(Whistler)의 뛰어난 구성 감각도 느낄 수 있다. 독특한 작품 과정 덕분에 지금도 사진을 판매할 때마다 사진 위에 다시 컬러를 입혀야만 한다.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덕분에 <사진가 어머니의 초상>은 매번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작품이 된다.

작품은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가?

작품에 대한 영감은 사진이 아닌 그림에서 얻는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방식의 사진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덕분에 내 작품들은 매 시리즈마다 조금씩 차별화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또 새로운 작품을 시작한다. 내 앞에 있는 것을 단순히 찍는 것엔 관심이 없다. 나의 작품으로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데 더 관심이 많다.

앞으로의 전시 계획 또는 출판 계획을 말해 달라.

<Spring Fever>시리즈로 미국 산타 바바라에 있는 월스페이스(Wallspace Gallery)에서 곧 전시가 있고 뉴욕에서도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2015년에는 토론재단에서 책도 출간할 계획이다.

글 | 조안양정아(Joanne Junga Yang, 국제사진기획자)

알린 스미슨(Aline Smithson)

미국 출신의 여류 사진가로 잡지의 패션 에디터로도 활동한 적이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 갤러리 전속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그라핀 사진미술관을 비롯하여 포트콜린스 현대미술관, 리쉬 사진 축제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12년에는 그라핀 미술관의 떠오르는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그녀의 작품은 미술관, 갤러리, 개인 컬렉터 등 다양한 곳에 소장되어 있다.